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32과	예수 안에 거함-믿음
성경말씀	에베소서 2장 8~9절(신약 p.310)
암송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신약 p.310)
찬 송	찬송가 295(통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9(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본 문 이 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라고 하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1.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보충설명

믿음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에 선을 행할 아무런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의 대속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2.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보충설명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9절

-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곧 교만의 열매를 맺어 나의 행위와 선행을 자랑하며 떠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교만이 싹틀 공간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 앞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묵상 이야기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존 뉴턴(1725-1807)은 방탕함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무역선의 선장자리에 올라 배를 타던 어느 날, 배에 몰아닥친 폭풍우 속에서 어릴 때 어머니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추악한 인생을 회상하고 고백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까지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중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나눔

-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저음 믿게 된 경험을 나눠봅시다.

기도

-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용

-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버려야 할 죄를 고백합니다.